500 천진불 수계로 밝힌 불교 미래

부산 · 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 성료

조계종 주최, 범어사·통도사 주관
7월 19일 BPEX 컨퍼런스홀서
세대 아우르는 전법 원력 다져
진우 스님 "포교, 불교의 생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7월 19일 열린 '부산 · 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천진불 대표에게 전법의 상징인 서원건을 직접 걸어주며 격려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야단법석이 부산에서 펼쳐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홀에서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14교구본사 범어사와 제15교구본사 통도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불교의 역량을 결집해 '미래세대 포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목종 스님, 부산 화엄회장 묘선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전재수 부산시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사)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조계종부산연합회,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조계종 포교사단, (사)동련,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대회는 식전 체험마당을 시작으로 수계식과 결집대회로 진행됐다. 1부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는 영남지역 어린이 청소년 500여 명이 우리말로 쉽게 풀어낸 오계를 수지하며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연을 맺었다. 2부 본행사는 선명상 등 포교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요, 전법은 우리 종단이 존재하는 까닭"이라며 "오늘 수계식을 통해 한 어린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운 그 작은 서원이 곧 한 국불교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 40주년, 파라미타 창립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과 선명상"이라고 짚었다.

현덕 스님은 "1400년 전법과 전계의 도량인 통도사 대중에게도 오늘 500여 명의 천진불은 한국불교를 밝힐 가장 소중한 등불"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 '아노미'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종단과 교구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파고는 우리에게 개별 사찰의 경계를 넘어 사부대중 전체가 하나의 원력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기성세대가 불교라는 대도량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환영사에 나선 수불 스님은 "포교는 수행을 통해 변화된 삶, 즉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살아있는 포교의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세대를 초월해 사부대중이 하나 된 '대중실천선언'과 '서원건 착의'였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신도 8명이 단상에 올라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원력을 담은 실천선언을 낭독했다. 이어 중장년 대표가 청년에게, 청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법의 상징인 서원건을 차례로 걸어주는 착의 의식이 진행됐다. 이 퍼포먼스는 부처님의 굳건한 법맥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상징하며,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단상의 스님들도 어린이 대표들에게 손수 서원건을 걸어주며 격려했다.

강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자비 손길'

수덕사 · 대불총, 동행에 지원금
복지재단 · 더프라미스, 현지 파견


7월 20일 열린 수덕사 기금 전달식.


7월 23일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기금 전달식.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찰과 단체들이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구호단체들은 지원팀을 파견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7월 20일, 대구불교총연합회(이사장 선광 스님·동화사 주지)는 23일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기금 각 2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위해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동참해줘 고맙다"며 "수덕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준 만큼 이를 계기로 많은 곳에서 자비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선광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동화사 총무국장 벽와 스님은 "더 일찍 준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전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진 피해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준 모습에서 불교의 본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고맙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7월 21일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와 구호팀을 베네수엘라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최대 피해 지역인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이재민 캠프에 '아동친화쉼터'를 운영하며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의 정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운 · 이현희 기자

사노위 연대 결실 '산재 사망' 공식 사과

추모제 · 1인 기도 등 이어와
7월 17일, 유족 합의 결실



7월 1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숨진 미얀마 노동자 고(故) 아웅민우 씨에 대해 SK에코플랜트가 공식 사과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사고 직후부터 추모와 연대 활동을 이어오며 원청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해왔다.

앞서 사노위는 7월 6일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하고 원청의 공식 사과와 분향소 설치를 요구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유족 입국 절차를 도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노위는 사 측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이후 사노위원 스님들은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매일 1인 기도를 이어가며 유가족 입국과 존엄한 장례 보장,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연대 속에 고인의 부인 친마이마이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7월 16일에는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이주노동자평등연대·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도 함께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 발언에서 "원청과 하청은 물론 정부까지 진상 규명과 배·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는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원청인 SK에코플랜트와 하청업체 LT삼보는 7월 17일 유가족과 최종 합의하고 공식 사과와 배·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약속했다. 양측 대표이사도 분향소를 찾아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배·보상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노위와 시민사회가 연대한 결과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사노위, '태움' 희생 간호사 49재

7월 20일, 경기 광주 병원 앞
해륜 스님 "공식 사과" 촉구



지난 6월 2일 직장 내 괴롭힘('태움')으로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가 거행됐다. 불교계와 시민사회는 병원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20일 고인이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에서 강수빈 씨의 49재를 봉행했다.〈사진〉

강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노동 당국은 일부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정 조치는 병원에 맡겨졌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훈계 수준에 그쳤다. 현재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병원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측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노위는 이날 추모 기도를 통해 병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노위원 해륜 스님은 "고 강수빈 간호사님이 직장 괴롭힘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부처님께 발원드린다"며 애도했다. 또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정부에 직장 괴롭힘의 뿌리를 뽑는 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 광주=이현희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2학기(9월)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불교전법사 / 명상지도사 / 심리상담사
학습 과목 공통과목 불교사, 불교학개론
전공과목 사회생활과 법,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마음챙김 명상과 뇌과학,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정신건강과참선명상
수업 시간 화 · 수 13:00~17:00 / 목 • 금 13:00~18:00
수강료 400,000원
학점은행제 불교심리학(불교학전공 / 3학점) • 정신건강과참선명상(교양 / 3학점)

대원아카데미

디지털대원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합니다
온라인 수강 가능
수강료 300,000원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특전 및 혜택
• 성적 최우수 장학금 : 수강료 100% 지급
• 성적 우수 장학금 : 수강료 50% 지급
• 불교계 종사자 : 수강료 50% 할인
• 가족 동반 등록 시 : 1인 수강료 50% 할인
• 수료자 재등록 시 : 수강료 50% 할인
• 2개 과정 이상 등록 시 : 1개 과정 50% 할인
• 과정 수강생 동반 1인 1과목 무료 수강
• 민간자격 취득 응시자격 부여
• 개강 첫 주 무료 공개 강의
• 개별 과목 수강 가능

접수 / 문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마감 2026년 9월 1일(화)까지
문의 02)707-1072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BBS 불교방송) 3 · 11층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